

광양시 차기 시금고 선정

NH농협은행·KB국민은행 3년간 업무 수행

광양시는 최근 광양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차기(2020~2022) 시금고 지정대상 금융기관으로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현 시금고인 NH농협은행과의 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시금고 업무를 수행할 금융기관 지정을 위해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했다.

지난 7월 31일 복수금고(제1금고, 제2금고) 지정방식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금융기관을 공모했으며, 지난 8월 21일부터 이틀간 신청제안서 접수결과 광주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3개 은행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시의원, 변호사, 금융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광양시 금고지정심사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제안서를 참고하여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등 5개 분야 19개 세부항목에 대해 심도 있는 평가를 했다.

평가한 결과 1순위에 NH농협은행, 2순위에 KB국민은행을 최종 선정했다.

제1금고는 1순위인 NH농협은행이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2개, 기타 8개), 기금(6개)을 담당하며, 제2금고는 2순위인 KB국민은행이 특별회계(6개)와 통합기금을



담당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금고제안에 따른 금융기관별 협력사업비 약정현황은 NH농협은행이 7억1천7백만 원, KB국민은행이 3억4천만 원으로 총 10억5천7백만 원이며, 기존대비 3억3천7백만 원이 증가하였다.

협력사업비는 어린이보육재단

과 백운장학회, 사랑나눔복지재단에 각각 배분하여 출연한다.

시는 차기 시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과 9월 중 광양시 금고업무 취급 약정을 체결하게 되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금고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광양=김승호 기자

구례군, 산수유길 명품숲 조성

산수유마을, '숲속의 전남' 주민참여숲 공모 선정

구례군은 산수유마을로 잘 알려진 산동면 상위마을에 공원처럼 아름답고 누구든지 쉽게 찾을 수 있는 대표 명품숲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역주민이 숲을 만들고 관리하는데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참여하여 숲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유발하기 위해 전라남도에서 추진한 '2020년 주민참여숲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것으로 4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0.8ha 규모의 숲이 만들어지게 된다.

화회 등 100여명이 함께 만드는 '산수유길 주민참여숲'에는 청정 계곡과 함께 하는 순환형 산수유꽃길과 편안하고 자유롭게 산수유꽃을 즐길 수 있는 산수유광장, 솔수국숲이 조성되며, 오랜 기간 방치되어 덩굴과 잡관목으로 마른을 제거하고 있던 지역에 주민참여숲을 조성하여 마을을 찾는 많은 관광객과 지역민 누구나 편히 쉬며 힐링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례=박진호 기자

순천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순천시는 경유차를 운행하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2019년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총 26,244건 약 11억 5천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저공해인증 차량이 아닌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로 연 2회(3월, 9월) 부과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년도 상반기(1.1.~6.30.) 사용분에

대해 차령계수, 지역계수, 오염유발계수 등을 반영하여 금액이 산정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은행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고흥분청문화박물관 한가위 문화행사 개최



이번 문화행사는 분청사기만들기, 설화캐릭터 팽이만들기, 한가위 차례상차리기, 나만의 엽서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등 체험 프로그램과 활쏘기, 투호놀이, 팽이치기, 굴렁쇠 굴리기 등 민속놀이, 어쿠스틱밴드, K-POP 등의 문화공연으로 분청문화박물관 야외광장에서 진행된다.

고흥군이 우리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흥을 찾는 귀성객 및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분청문화박물관과 함께하는 한가위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분청사기 만들기 체험은 물레체험, 철화기법 체험 등 분청사기의 다양한 제작기법을 세분화하여 체험을 통해 분청사기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다.

고흥=한운섭 기자

분청문화박물관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추석 당일에도 정상개관하며,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여수시, 교통·재난 등 10개 분야 '추석 종합대책' 추진

추석 연휴 '24시간 종합상황실' 가동

여수시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교통, 보건·진료, 재난·재해 등 10개 분야에 대한 추석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시는 이달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1일 87명, 연인원 345명으로 7개 대책반을 꾸려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연휴 전에는 다중이용시설, 공사현장, 교통편의시설 등을 안전 점검하고, 연휴 기간에는 재난·재해 상황실을 가동해 비상상황에 즉각 대응한다.

추석 성수품 32개 품목, 대중음식점,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물가인상이 예상되는 주요 품목과

업종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한다.

대중교통 수송력 증대, 관광주요지점 교통소통대책반 운영,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등을 통해 주민 편의도 도모한다.

당직·응급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세대도 돌본다.

오는 10일에는 자생단체, 유관

기관과 함께 취약지 환경정비에 나선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민과 귀성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정보, 문화행사, 병원·약국 등 추석 연휴 종합정보는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수=송기홍 기자

보성군, 추석 명절 장보기 행사 진행



보성군에서는 7일 오전 10시 태풍 '링링'이 잠잠해지자 명절 대목을 앞두고 태풍으로 인해 절령해진 향토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위로하고, 명절맞이 차례상 제수용품 구매했다.

이날 장보기 행사는 녹차골보성향토시장에서 열렸으며, 300여 명

의 보성군 공직자가 함께했다. 공직자의 대거 방문에 태풍으로 손님발길이 끊겨 울상이었던 향토시장 상인들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군 관계자들은 각자 필요한 제수용품부터 각종 특산물을 구매하며 향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또한, 지난 4일 판매를 시작한 '보성 사랑 상품권'을 사용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품권 사용에 군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화순군, 마늘 적기 파종 당부

화순군은 본격적인 마늘 파종 시기를 앞두고 마늘 적기 파종과 파종 후 핵심 재배기술을 통해 고품질 마늘 생산할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화순 마늘은 대부분 난지형(남도 마늘) 품종으로 9월 하순에서 10월 상순에 파종을 시작한다. 종구를 통해 감염하는 잎마름병, 흑색썩음균핵병, 줄기선충, 뿌리응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씨마늘 소독을 적용해 약제를 알맞은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씨마늘 소독을 위해서는 파종 1일 전 벤레이트제 500배액(40g/물 20l)과 디메토유제 1000배액(20

ml/물20l)을 혼합해 선별한 씨마늘을 1시간 담근 뒤 그늘에 말린 이후 파종하면 된다. 소독할 씨마늘이 많으면 2~3일 전에 미리 소독·건조 후 파종할 수도 있다.

마늘 재배 포장은 파종 2~3주 전에 퇴비와 석회를 포장 전면에 골고루 뿌린 후 깊이갈이를 한다. 파종 일주일 전에 화학비료와 토양살충제를 뿌리고 골 만들기 작업을 해주는 것이 좋다.

난지형 품종의 적정 파종량은 10a 당 180~240kg으로 지난해에 병해충 피해가 없었던 종자를 사용해야 한다.

화순=박순철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신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사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민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